서소문공원 ‘성지’ 아닌 ‘열린 공간’ 변화를…

종교투명성센터, ‘종교와 재정’ 좌담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6월 가톨릭 순교성지가 된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한 종교편향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종교투명성센터는 1월 29일 서울 중구 문화살롱 기룬에서 ‘종교문화시설의 현주소-서소문역사공원의 경우’를 주제로 ‘종교와 재정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가톨릭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서소문역사공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공공부지였던 공간이 특정 종교의 성지로 점유·전유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소문역사공원의 전시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서소문역사공원 전시 운용의 세부내용을 보면 사실상 특정 종파의 장기독점을 염두에 둔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됐다”며 “실제로 가톨릭만을 위한 경당을 갖추고 그곳에 종교의식만을 전담하는 사제를 배치하고 있어 종교시설로서의 물적, 인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길순 명지대 교수는 ‘서소문공원 성지화 과정’ 주제 발표에서 “국가 공공기관에서 특정종교 사업을 할 수 없지만, 특정 종교 유적지 사업을 진행했다. 이름만 서소문역사공원이고 내부 시설은 서소문 순교성지박물관이 됐다”면서 “해당 공원은 명실상부한 조선시대 역사 희생자 추모시설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톨릭 순교성지가 된 서소문역사공원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천도교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다. 동학 농민운동의 지도자인 전봉준이 1894년 이곳에서 교수형을 당했으며, 2대 교주 최시형은 1898년 서소문 감옥에서 재판을 받은 뒤 순교했다. 동학 농민군 3대 지도자 김개남은 전주에서 참형된 뒤 머리만 압송돼 다시 서소문역사공원에서 효수됐다. 이웃종교와 민중의 기억을 지우고 자신의 역사를 부각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서소문역사공원에 세워진 천주교 순교자 현양탑. 서소문에서 순교한 천주교인들을 기리며 세워졌다. 이를 중심으로 공원 내에 순교 박물관이 건립돼 있다.

국고 등 596억 원 투입돼
지난해 가톨릭 순교성지화
이웃종교·민중 역사 지운
무리한 성지화 사업에 비판
“다양성 견지서 재구성 필요”

이 같은 가톨릭의 성지화 사업은 불교계와도 갈등을 빚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천진암과 여주 주어사다.

천진암과 주어사는 조선 후기 중국으로부터 전래한 천주교 자료들을 공부하던 권철신 등이 1779년 천주강학을 진행하다가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천주학을 공부하던 이들과 이를 보듬고 지켜주던 스님들이 함께 수난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폐사의 길로 접어든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이다.

하지만 천진암은 더 이상 사찰이 아닌 한국천주교회 창립 성지로 불리고 있다. 이곳에는 한국 가톨릭 창립 선조 5위의 묘소가 있고, 매년 한국천주교회 창립 행사도 열리고 있다.

다만 주어사지는 국유지여서 본격적인 성지화 사업을 하지 못하고 2022년까지 임차한 상황이다. 여기에 2015년부터 용주사를 중심으로 가톨릭 성지화 추진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 사업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어사지에 있었던 ‘해운당대의징비’를 천주교 절두산 성지로 가져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2015년 당시 주어사지 가톨릭 성지화 반대 운동에 나섰던 제2교구 신도회는 “천주교 측이 천진암을 성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천주교 성당으로 옮긴 주어사 해운당대사 의징 스님비와 여주시청에 보관돼 있는 부도탑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소문역사공원 역시 특정종교의 성지가 아닌 공동의 역사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게 이날 좌담회 참석 패널의 주장이다. 성강현 동의대 교수는 “동학의 관점에서 본 서소문은 동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사적 공간”이라며 “서소문역사공원은 천주교가 독점할 역사적 공간이 아니라 조선시대 동학을 포함한 사회 개혁·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집중 사무총장은 “근본적으로 구청이 시설운영권을 가져와 직접 운영하고 종교·사상·역사적 다양성의 견지에서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종교만의 배타적 공간이 아닌 다양한 종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폭설 내린 월정사 ‘雪景’

평창 월정사를 비롯한 강원도 전역에 올해들어 첫 눈다운 눈이 내렸다. 뒤늦게 평균 9cm의 눈이 내려 최근 3년 만의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

사찰의 기와지붕마다 소복히 눈이 쌓였고, 공양보살상은 하나의 눈사람이 됐다. 월정사의 상징인 팔층석탑은 하얀 설경의 상징처럼 눈속에 드러났다.

운력으로 눈을 치워야하는 걱정도 잠시 눈은 어렸을 때의 순수한 감정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새하얀 눈 덮인 월정사 설경이 주는 매력에 참배객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는다. 눈꽃 속에서 추억이 쌓이고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는 낭만을 더한다.

노덕현 기자, 사진제공=월정사

백만원력 원만성취 기원법회 시작

조계종, 위례 상월선원서 1월 29일 1차 법회 봉행

“대한민국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 발원도량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만성취 기원 1차 기도법회를 맞이해 지극정성으로 기도 축원하옵나니 국민들의 고난을 어루만져 안락하게 하옵시고 남북이 공존하여 하루속히 상생하게 하시옵소서.”

위례 상월선원 기도법당에 우리 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간절한 발원이 하나로 모여 울려 퍼졌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회향을 일주일 앞둔 1월 29일, 조계종 소임자를 비롯한 불자대중이 백만원력 결집불사 성취를 발원하는 제1차 백만원력결집불사 원만성취기원법회가 열렸다. 조계종이 개최한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부실장 스님들과,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300여 명이 참여했다.

기도법회에 종단을 대표해 법사로 나선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낙산사 화재 이후 10년에 걸친 복원불사 중에서도 끊임없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발원했다. 8가지 종단의 중차대한 불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꼭 기도를 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믿는 신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 손과 마음으로 함께 정진한다면 이뤄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금곡 스님이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3월 6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앞에서 2차 기원법회가, 3월 26일 인도 보드가야에서 3차 기원법회가 열리며 매달 백만원력불사 현장에서 기원법회가 열린다.

위례=노덕현 기자


백만원력 원만성취 1차 기원법회서 참가 대중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병동 증축된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 병동신축 결정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250병상 규모의 병동을 신축한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법산)는 1월 31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26차 이사회를 열고 일산불교병원 신축 계획을 승인했다.

6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병동 증축 불사는 250병상 규모의 입원실을 비롯해 교수연구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회복기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전문치료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사회는 “새로운 병동이 들어서면 기존 650병상에 250상이 더해져 900병상을 보유하게 돼 그동안 제기돼온 병상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예산 확보와 설계,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9일 임기만료된 이사 일관 스님과 9월 20일 임기 만료된 감사 주경 스님의 후임 선임의 건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와 감사는 조계종의 후보 추천을 받아 선출해야 하지만 조계종의 추천이 없었다”고 이월을 결정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2020년 산하기관 예산안과 경주병원 응급실 및 장례식장 확장공사 등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고 폐회했다.

신성민 기자

2020년도 1학기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모집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 불교학연구자를 위한 한문독해능력 배양 | 불교학술원의 학술사업 참여 인원 양성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협력 교육기관

1. 모집 인원

구 분		수업연한	정 원	비 고
기본과정	선발	2년	30명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일반	학기별	30명	선착순
심화과정		2년	15명	서류심사 및 면접/필기전형

2. 지원 자격

■ 기본과정
- 4년제 대학 재학생 이상
- 조계종 교육원 추천을 받은 승려
- 불교한문에 관심이 있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일반 수강생은 학력무관

■ 심화과정
- 불교한문 아카데미 기본과정 졸업자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 기본과정 졸업자와 동등한 한문 능력을 갖춘 자

3. 입학원서 접수
- 기 간 : **2020. 2. 3(월) ~ 2. 21(금) 17:00**
- 제출서류 : 불교학술원홈페이지 입학안내 참조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4. 입시 전형
- 전 형 일 : **2020. 2. 22(토) 10:30~11:40/13:00~16:00**
- 전형장소 :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본관동 227호

	1교시 (10:30-11:40)	점심시간 11:40-13:00	2교시 (13:00-16:00)
기본과정			면접 전형
심화과정	번역시험		면접 전형

※ 번역시험 출제범위 : 대승기신론, 선원제전집도서(종밀), 현정론(기화).

5. 합격자발표 : **2020. 2. 25(화)** ※개별 통지

6. 수업운영
- 개강일 : **2020. 3. 2(월)** - 수업시간 : 18:30~21:30(3시간)

개설과목

	월	화	수	목	금
기본과정	아함경	범어한문 경전강독	논어	구사론	삼국유사
	금천스님	원과스님	공근식	박인성	박해당
심화과정	대승의장	화엄현담	불가문집 번역연습	한시특강	선어록
	박해당	선암스님	성태용	이상하	문광스님

※ 각 과정별 1~5과목 선택수강 가능(1과목 3학점 / 15주)

7. 수강료

		일반인	동국대 교직원 재학생	선발과정 수료생	동국대 대학원수료생 타대학·대학원 재학 및 수료생
기본과정	선발	60만원	30만원	30만원	42만원
	일반(과목당)	20만원	10만원	14만원	14만원
심화과정	선발	60만원	30만원	30만원	42만원

※ 조계종승려 : 연수생 - 전액면제, 일반 수강 - 과목당 14만원
※ 심화과정 수료자는 심화과정 일반수강가능 - 과목당 10만원
※신한은행 140-009-359309(예금주:불교한문강좌) - 수강자 이름 반드시 표기 / 교재비 별도

8. 특 전
- 조계종 추천 승려 기본과정 2년 수료 시 종단의 3급 승가고시 응시에 2년 교육 경력 인정
- 선발연수생 : 성적 우수자 장학금 수여, 동국대 중앙도서관 도서대출증 발급

오시는 길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전화 : 02-6713-5154 / 이메일: hanmun@dongguk.edu
홈페이지: http://abc.dongguk.edu/academy/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본관동 3층 310호(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3,4번 출구 매일경제 사옥 맞은편)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